



"믿고 맡겼는데"...동탄 사립유치원 학부모 '신뢰 파탄'

송고시간 | 2018-10-15 15:07











류수현 기자

원장 항의방문에 구급차로 '피신'...靑게시판에 국민청원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한 것과 관 련해 학부모들의 공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비리유치원으로 지목해실명공개한 환희유치원 전경

실명 공개된 유치원 중 한 곳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있는 환희유치원 학부모들은 해명을 듣기 위해 지난 14일 유치원 에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2월 이 유치원을 감사한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A씨는 교비를 숙박업소, 성인용품점에 서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와 노래방 비용 등으로 내는 등 약 7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파면되고 나서 총괄부장으로 지내면서 원장을 공 석으로 두고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학부모들의 방문에 미리 준비한 구급차로 현장을 빠져나 간 것으로 알려졌다.

환희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다는 한 학부모는 인터넷 '맘카 페'에 글을 올려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가 받는 대가는 너무 나 큰 것 같다"라며 "주먹구구도 이런 주먹구구가 없고 꼼수도 대 단하다. 아이를 볼모로 너무하는 짓"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청와 대 청원 게시판에는 '환희유치원을 정상화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1010회 ਰਵਯੂਸ਼ਗਤ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 등징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봄소식...오래 기립박수 칠...



청원개요

저는 동탄 **유치원 학부모 입니다. 최근 원장의 비리 사건이 알려지면서 메스컴에 크게 보도 도고있습니다. 원장이 병원에 실려간 상황에서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걱정됩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당장 오늘도 아이를 유치원에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치 원 원생 수만 300 명에 달합니다. 교육부 혹은 담당 화성오산 교육 지원청에서 나서서 유치원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요청드 리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 [인터넷 갈무리]

청원 게시자는 "잘못을 떠나서 당장 오늘도 아이를 유치원에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며 "교육부 등이 나서 (환희)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개입할 수 있는 교육청 권한은 크지 않다"며 "현행 사립학교법 과 유아교육법이 개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7살 딸을 도내 한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다는 학부모 이모(37)씨는 15일 "유치원은 아이들이 첫 교육을 받는 시발점인 만큼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라며 "일부 유치원의 비위라고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게끔 유치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0/15 15:07 송고

#학부모 #박용진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성] 압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영성]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된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런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뭐하고 놀까? ## 😛 →

유튜브채널 연압뉴스











sns **f**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nnews